

강진, '수국길 축제' 기념 먹깨비 할인쿠폰이 쏟아진다

무안군, 청계면 도시재생 '두:드림 아카데미' 개강

강진군이 오는 26일부터 개최되는 '제4회 강진 수국길축제'를 기념해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연계한 파격적인 할인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할인쿠폰 적용 방법은 먹깨비(앱) 내 '주문하기'에서 '할인 수단'을 선택한 후 '할인쿠폰 적용'을 누르면 된다. 한정 수량에 한해서 이벤트 기간 내내 1인당 매일 1회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서 발행한 자체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4회 강진 수국길축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보은산 V랜드 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이를 기념한 먹깨비 특별 이벤트는 22일부터 28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된다.

강진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정이나 숙소에서도 먹깨비를 통해 강진의 다양한 먹거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역 축제 소비가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할인 쿠폰은 이벤트 기간인 7일 동안 매일 선착순 300매씩 발행되며, 축제 개최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축제 전 22일부터 25일까지는 1천 원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축제 기간인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주말 할인 등을 더해 최대 매일 5천 원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중개수수료가 15%로 낮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배달앱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전운재 기자



제4회 강진 수국길 축제 최대 5000원 쿠폰 할인 이벤트 포스터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목포시, 어린이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는 지난 17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해 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과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 등을 익히며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였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는 매년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과 대면 실습교육 2시간 등 총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이번 교육 미참석 종사자는 온라인 이론교육(2시간)을 이수한 뒤 7월 14일 열리는 3차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정부합동평가 전남 22개 시군 중 '종합 1위' 달성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함평군은 18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종합 1위에 선정돼 총 1억 7,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국가 주요 정책

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정부평가 제도로, 일자리·경제·문화·복지·환경·안전 등 행정 전반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80개·정성지표 14개 등 총 94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함평군은 정량평가 부문 80개 지표 중 75개를 달성해 94%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정책 추진 우수 사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전남도 내 유일하게 14개 전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정성평가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도내 1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함평군의 우수한 정책 기획력과 행정 추진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았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 개최

영암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군은 17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우수희 영암군수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 상황을 살폈다.

이날 회의에는 영암경찰서, 영암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군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재해취약지역 관리 현황과 기관별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영암군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급경사지와 저수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우려지역 286개소

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배수펌프장 점검, 하천 준설, 빗물받이와 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며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회의에서는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와 상황 전파, 교통 통제, 응급 복구 등 기관별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문수 기자

신안, 장마철 식중독 예방, 작은 실천이 건강 지킨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다. 장마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가 이어지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도 크게 높아지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대부분은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회복되지만,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의 경우 심한 탈수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장마철에는 음식물이 쉽게 변질된다.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평소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박성태 기자

